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박명숙*, 이재경**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yungsook Park(mspark@sangji.ac.kr)*, Jaekyoung Lee(jklee@cs.ac.kr)**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을 돕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5회기의 단기개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은 주1회씩 5주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통제집단 연구설계를 하였고,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7명에 대해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에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없었지만,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수준의 증가하였고,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위험성 및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할 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 | 아동학대 | 예방프로그램 | 문화적응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revention program of child abuse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prevention program was consist of 5 sessions and it was provided to participants once a week for five week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ru the community cente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the prevention program with the comparison groups(pre-post). With the independent-samples t-test and paired-samples t-test, the program verifi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variables of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recognition of social policy. This study suggests the parenting education of child abuse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 keyword : | Marriage Immigrant Women | Child Abuse | Prevention Program | Acculturation |

* 본 연구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6656).

접수일자 : 2016년 03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4월 27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27일

교신저자 : 이재경, e-mail : jklee@cs.ac.kr

I. 서론

한국사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처벌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은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표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74년 미국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강력한 독립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의 제정으로 미국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과 역할강화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아동복지 관점에서 자녀양육이 원가정보호라는 목적을 중시하며 학대를 가정 내부의 문제로 취급하여 왔지만[1],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원에서 엄연한 범죄행위로 법적 처벌이 필요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최근의 아동학대 실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발생률의 증가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2]에 의하면,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 5,657건 중 4.3%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학대행위자로 부모에 의한 발생률이 9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및 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경우, 학대원인의 31.8%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있어 적절한 부모역할과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3],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관련 법률적 지식 및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많은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4][5]. 즉,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6][7]. 특히, 이주결혼이라는 특성상 문화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산과 자녀양육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놓인 모든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원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9-11]. 다시 말해 국내 이주여성들의 경우,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크고, 출산과 양육이라는 새로운 생애과정에 돌입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더욱이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 중의 하나인 사회적 지지체가 부족한 이주여성들의 경우, 아동학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12]. 실제로 박명숙과 이재경[13]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발생 위험성에 대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이주여성들은 부부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부부간에 정서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정폭력의 경험 가능성이 높다[14].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다문화가정내 이주여성들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을 보여준다[15]. 특히, 자녀양육방식은 그 사회의 문화 및 가치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각 문화마다 전통적인 자녀양육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주 부모들의 경우 자신들의 문화적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주한 사회의 법적, 제도적 규정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등 다양한 이민가정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문화적 양육방식과 법적처벌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16].

이에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응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

들의 문화적응과 건강한 양육 및 가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민감성이 반영된 대처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소수의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13][17]. 실천현장에서도 이주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등 양육과정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서비스 구조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13]. 이에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양육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사회서비스 구조 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지원체계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향후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이주여성과 아동학대 관련요인

아동학대의 원인은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주요원인이다[13][15].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 및 지지체계의 확보는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6][31].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22]. 문화적응은 다른 문

화와 접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를 의미하는데 [18], 낯선 문화에 이주자로 적응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19-21]. 특히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과 부모됨의 과정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역할의 수행과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22-24]. 즉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응과 양육,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하여 박명숙과 이재경[13]은 한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위험성을 검증하였고,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학대의 발생위험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 살아가야 할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문화적응과 양육이라는 과업의 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아동학대의 발생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발달 및 적응상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편견,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가중되고 있다[25]. 더욱이 이들은 문화적인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아동학대 행위자로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요인 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크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사회적지지는 가족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켜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돕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26-30].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이후 한국내에서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가족, 이웃 등과 적절하게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과 양육에 대한 지지체계가 견고하지 못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이 되고[31],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32], 아동학대 위험요인인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보호요인이 되며,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

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학대의 발생은 정책, 제도와 법률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법률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사회규범으로 구체적인 행동규칙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법률로서 정의하고,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즉,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은 학대로부터 보호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 사람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33]. 아동학대는 국가와 문화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및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법률에 대한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와 위기상황에서 대응방법의 효과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발생시 대처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자녀양육과 문화적 다양성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양육을 돕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사회화된 국가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이며, 자녀 양육방식과 태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민족의 문화 및 사회성에 따라 자녀양육 방식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문화적응, 양육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이민가정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자녀 양육방식의 문화적 차이 및 관련 정보와 지원체계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35]. 실제로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신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간의 차이로 인해 양육방식,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 이중문화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다[36]. 이와 관련하여 박찬옥과 이은경[36]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부모역할 인식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부모가 속

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자녀양육 및 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신 국가별 양육방식에 따라 다른 특성으로 나타났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그들의 가족결성, 문화적응, 양육이라는 생애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소수민족과 문화를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문화적응이라는 민족적 배타주의가 아닌 문화적 상호주의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민족과 문화를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녀양육이라는 과업은 문화적 차이 이전에 생물학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재희와 유향선[37]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이 자신이 성장한 문화와 이질적인 한국문화에서 자녀를 양육할지라도 주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원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양육의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배경과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35]. 부모됨은 생물학적 과정만 아닌 양육과정에서의 다양한 관습과 제도가 결합되는 문화적 적응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양육 방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3. 다문화가정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요소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위험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있다.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와 관련한 연구로는 최근에 박명숙과 이재경[13]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구조적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오세연과 박원배[17]는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원인으로 언어소통의 부재와 가치관에서 오는 문화적인 갈등, 경제적 빈곤과 박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유대관계의 약화를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문제의 접근을 시

도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원인을 밝혀내는데 제한적일지라도, 그동안의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결혼이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경험하는 아동학대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결혼이주 여성이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위험성을 유발한다는 Moon과 DeWeaver[5]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구 뿐 아니라 실천현장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정부부처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고,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접근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의 적응과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주양육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 가능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은 시의적절하다.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궁극적인 목표가 예방이며, 이를 위해서 부모교육을 강조한다[38]. 부모교육은 학대예방차원에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부모를 교육시킴으로써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39]. 더욱이 해마다 발표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을 포함한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40]. 또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부모가 가해자인 동시에 아동이 복귀해야 할 가정환경 이기에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모가 인정하고,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41].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선행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등 양육기술이다[38].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아동과의 공감,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는데[42-44], 이러한 양육기술의 부족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40][45-47]. 따라서 부모기술, 역할수행, 대인관계기술,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등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정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은 문화적응과 한국내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음주문화에 따른 남편의 음주[15], 가부장제에 의한 가정폭력[17]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대처기술이 요구된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구조적 여과장치가 거의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양육과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13].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내적·외적 자원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데[32], 양육뿐 아니라 문화적응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자원을 연결한다면 양육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현 외[8]는 각종 한국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문화적응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사회적 유대관계의 약화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기인하는데[17], 이므로 한국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되어 있다는 점은 반대로 이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상쇄시키는 기능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

다. 최나야 외[48]는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출신국가와 한국사이의 가족왕래를 돕는 방법, 출산과 초기 양육지원 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다문화가정 간의 연계, 다문화가정의 남편을 비롯한 다른 가족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등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문화적 양육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남편이나 시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양육에서 소외되거나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양육을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8][24][49]. 이에 양육에 대한 기술 및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국가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정보제공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은 문화적응 및 사회적지지망 구축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학대의 주요요인으로 제기되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아동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정책 및 법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4. 결혼이주여성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을 목표로 앞서 제시한 '3. 다문화가정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요소'에 따라 주요내용을 선정하였다. 아동학대는 문화, 제도, 법률 등 그 사회의 환경적 측면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다양한 요인들을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였고, 교육적 모델과 인지행동모델, 생태체계 이론 등을 절충적으로 적용하여 구조화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법률지식 인지, 정서·행동변화를 지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적 구조는 관계형성 및 문화이해, 자녀양육기술, 정보전달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영향과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단기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4.1 목적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기술 교육 및 문화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을 목표로 문화적응, 양육기술, 아동학대예방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양육기술은 아동의 행동과 발달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갈등 및 문제해결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 문화적응은 한국생활을 위한 문화적응과 양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지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은 한국의 아동정책과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다.

4.2 구성

프로그램 구성은 1차, 2차 예방 중심 community-based program으로, 전달방식은 집단규모를 20명 이내로 주당 1회기(60분)를 기준으로 총 5회기로 진행된다. 진행은 주진행자 1명을 기본으로 관찰과 진행보조를 위한 1인의 보조인력이 투입하였고, 참가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각 회기별 주요 내용을 번역해서 유인물로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의 지향성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사회기술 및 양육기술훈련, 인지행동적 접근, 통합적 접근이다.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고,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즐거워 배우는'(Fun & Learn) 경험 중심의 접근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첫째, 관계형성 및 문화이해를 중심으로 참여자들 간의 관계형성 및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둘째, 자녀양육기술 훈련을 위해 한국의 양육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 아동학대예방과 대처를 위해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

권리를 이해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의 전체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전체 구성

단계	회기	주제	주요내용
예행편	1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 프로그램소개 - 자기소개 및 관계형성 - 집단규칙 정하기, 참여 동의하기
	2	한국문화 이해	-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에서의 삶 (한국의 음식문화와 내 남편의 음식) - 문화적응에 대한 심리사회적 소통 - 의사소통(문화, 가족, 자녀) : 사회기술 - 가족, 친구, 자녀학교, 이웃 관계망
	3	자녀양육 기술	-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 한국의 양육법 (아동발달, 아동행동, 문제 이해, 학대위험 사회규범) - 스트레스 대처, 정서 및 분노 해소 - 협상 및 문제해결기술(효과적 의사소통 및 대화법)
	4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기술	- 한국의 아동학대 : 아동학대, 아동 권리, 인권, 정책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시스템 알기 - 학대상황에 대한 대처법
마무리	5	수료 / 종료	- 자조집단 형성 - 수료식 - 종료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참여대상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사 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의 비동일 통제집단 디자인을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두고 프로그램의 시작 전과 종료 후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프로그램은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3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주 1회 1회기로 총 5회기 진행하였다. 3개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자는 실험집단이 18명이었고, 통제집단은 17명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은 결혼이주여성으로 3세 이상의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다.

2. 조사도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49]이 번안한 Abidin[4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번안한 척

도는 총32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50]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사용하였다. 이승종[51]이 번안하였고, 원척도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소속감, 문화충격,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김오남[6][55]의 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기준으로 부적응에 대한 요인 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박명숙과 강희경[53]이 번안한 McCubbin 외[54]에 의해 개발된 Social Support Index(SSI)를 사용하였다. 총 17개 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고, 친구지지, 가족지지, 지역지지 등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 가족지지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이며, 4, 6, 7, 11번 문항은 역점수화 되어 있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제도의 인식은 13문항으로 한국의 아동복지법을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 정책과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를 ‘예/아니오’로 설문하였다. 문항에는 정답이 존재하며, 정답수를 인식수준으로 간주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먼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서 왜도가 3, 첨도는 10이하로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어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비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sample t-test)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paired-sample t-test)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0.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프로그램 참가기관은 강원도 원주, 정선, 홍천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각 기관의 참여자 중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사람은 18명으로 원주 6명, 정선과 홍천이 각각 7명이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30%, 중학교 15%, 무학 및 초졸 10%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82.4%로 ‘있음’ 17.6%보다 많았고, 이들의 가족수는 3명과 4명이라는 응답이 각각 33.3%로 총 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5명 20%, 6명 13.3%순이었다.

표 2. 프로그램 참가자 일반적 특성

변수	실험 (n=18)	대조 (n=17)	변수	실험 (n=18)	대조 (n=17)
지역			종교		
원주	6(33.3)	3(17.6)	있음	3(18.8)	7(41.2)
정선	5(27.8)	5(29.4)	없음	13(81.3)	10(58.8)
홍천	7(38.9)	9(52.9)	거주기간(월)	69.6	125.0
학력			가족수		
무학/초졸	2(11.1)	0(0.0)	3명	7(38.9)	4(23.5)
중졸	1(5.6)	1(5.9)	4명	6(33.3)	6(35.3)
고졸	9(50.0)	8(47.1)	5명	3(16.7)	6(35.3)
대졸이상	6(33.3)	8(47.1)	6명	2(11.1)	1(5.9)

2.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효과성 평가

2.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먼저,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개입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3]과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아동학대 제도인식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없지만,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 등 각 요인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3]과 [표 4]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요인별 점수준을 보여준다.

표 3. 사전조사의 Independent-sample t-test 결과

	집단	응답	평균	표준편차	t값	df	p값
양육스트레스	실험	17	17.2353	9.38436	-.097	31	.923
	통제	16	17.5625	9.95301			
문화적응스트레스	실험	18	10.3333	6.25911	-.783	33	.439
	통제	17	12.1765	7.64228			
사회적지지	실험	18	23.8333	4.03295	-.859	33	.396
	통제	17	25.1176	4.79430			
제도인식	실험	17	11.0000	2.15058	-1.342	32	.189
	통제	17	11.8235	1.33395			

*p<.05, **p<.01, ***p<.001

다음은 총 5회기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4]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통제집단과 평균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각 요인별 점수의 변화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사전조사의 집단간 차이에서 통제집단의 점수가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표 4. 사후조사의 Independent-sample t-test 결과

	집단	응답	평균	표준편차	t값	df	p값
양육스트레스	실험	17	14.8235	6.57871	-.791	32	.435
	통제	17	17.1765	10.35758			
문화적응스트레스	실험	18	8.6667	5.56248	-1.327	33	.194
	통제	17	11.8824	8.54314			
사회적지지	실험	18	25.8889	4.22721	-.266	33	.792
	통제	17	26.2941	4.77971			
제도인식	실험	17	12.1765	1.66716	.096	32	.924
	통제	17	12.1176	1.90008			

*p<.05, **p<.01, ***p<.001

2.2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조사결과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개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의 조건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각각에 대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실험집단에 대한 프로그램 개입 전 사전조사와 프로그램 개입 후 사후조사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5]. 양육스트레스는 사전 평균점수가 17.24점이었고, 사후 평균점수는 14.82점이었다. 양육스트레스가 2.41점 감소하였지만 사전-사후의 평균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t=1.51, p=.1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이 실험집단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전 평균점수가 10.33점이었고, 사후 평균점수는 8.67점으로 1.67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의 평균차이는 $t=2.24, p=.04$ 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입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사전 평균점수가 23.83점이었고, 사후 평균점수는 25.89점으로 2.0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t=-2.12,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이 사회적지지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제도인식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정답을 확인한 것이다. 분석결과 제도인식 정답점수가 사전 평균 11.00점에서 사후 평균 12.18점으로 1.1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t=-2.54, p=.02$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제도인식에 대한 점수가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5. 실험집단의 Paired-sample t-test 결과

	집단	응답	평균	표준편차	t값	df	p값
양육스트레스	사전	17	17.2353	9.38436	1.514	16	.150
	사후	17	14.8235	6.57871			
문화적응스트레스	사전	18	10.3333	6.25911	2.236*	17	.039
	사후	18	8.6667	5.56248			
사회적지지	사전	18	23.8333	4.03295	-2.115*	17	.049
	사후	18	25.8889	4.22721			
제도인식	사전	17	11.0000	2.15058	-2.537*	16	.022
	사후	17	12.1765	1.66716			

* $p<.05$, ** $p<.01$, *** $p<.001$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사후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본 프로그램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적지

지를 증가시키며, 아동학대 제도인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개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에서 확인된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가 프로그램 이외의 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사후조사의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6]과 같이 통제집단은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사전-사후 평균점수의 변화가 있었지만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점수와 사후 평균점수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증결과와 함께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이 효과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했던 변수들에 대해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변수들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통제집단의 Paired-sample t-test 결과

	집단	응답	평균	표준편차	t값	df	p값
양육스트레스	사전	16	17.5625	9.95301	1.062	15	.305
	사후	16	16.7500	10.54198			
문화적응스트레스	사전	17	12.1765	7.64228	.436	16	.668
	사후	17	11.8824	8.54314			
사회적지지	사전	17	25.1176	4.79430	-1.273	16	.221
	사후	17	26.2941	4.77971			
제도인식	사전	17	11.8235	1.33395	-.753	16	.463
	사후	17	12.1176	1.90008			

* $p<.05$, ** $p<.01$, ***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자녀양육을 돕는 아동학대예방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아동학대 관련요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아동학대 제도인식 요인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요인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교육모델과 인지행동모델, 생애

체계이론을 절충하여 구조화하였고, 프로그램의 참여와 흥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즐기며 배우는'(fun & learn) 경험 중심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관계형성 및 문화이해, 자녀양육기술 훈련,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등을 주제로 총 5회기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일반적 전달형태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다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교육방식의 필요성[13]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문화적 민감성[37]을 강조하여 구성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조사결과와 사후조사결과에 대한 평균비교, 각 집단별 사전-사후조사 평균비교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평균비교를 통해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각각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차이는 없었는데, 사전조사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가 없음은 동일한 조건에서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후조사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차이는 없었고, 이는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낼 만큼 영향이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평균비교에서 실험집단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아동학대 제도인식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응을 위한 의사소통기술의 습득과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 간의 관계형성과 친구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적지지를 위한 자조집단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지지기반으로서 관계정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인식

은 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인권,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였고, 정보전달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인식, 학대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 즉, 아동학대의 많은 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결과[2]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위험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아동학대 행위유발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자녀양육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자녀양육법,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및 분노해소, 자녀관계에서의 협상 및 문제해결기술을 주로 다루었다. 하지만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할 만큼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1회기로 제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프로그램 내용인 한 회기 내에 진행하기에는 비교적 많은 내용이라고 평가되었고, 특히 시연과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각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한계를 노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조사결과보다 사후조사결과에서 평균이 감소하였음은 프로그램 내용상의 한계보다 프로그램의 구조적 한계로 볼 필요가 있고, 1회기의 프로그램을 몇 개의 회기로 재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과 양육스트레스의 감소,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인식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인식의 변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으로 사회적지지의 증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감소라는 결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더욱이 집단역동을 활용하여 지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언어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내용에 대한 공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문화적응 양육지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응과 양육이라는 이중 어려움의 위치에 놓여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은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많은 이민사회에서 이주부모들이 자신의 문화적 양육 방식에 근거한 양육행위로 인해 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제도적 내용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적용 중에 있거나 적용을 완료한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사회서비스 구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결혼이주민들의 대다수가 이곳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곳의 특징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목적으로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정서 등 개인서비스는 물론 가족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진행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결혼이주성과 자녀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예방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성과 자녀에 대한 서비스 구조를 통합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다문화가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 1회기(60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 참여자들의 거부감이 적고, 문화적응 및 양육지원,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기관 및 참여자들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정규과정으로 신설하여 기관내에서 운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 이점을 살린다면 기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적절한 대처능력 함양이라는 예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권리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인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고, 아동에 대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기본으로 한다. 이 중 보호의 권리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로서 기본적 생존은 물론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이다. 이러한 권리차원에서 본 프로그램은 아동학대의 위험성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 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차원에서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발굴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 차원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접근도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고, 이러한 열악한 적응 환경은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자신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아동과 결혼이주여성 모두의 삶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은 중요한 접근의 필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3곳 지역에서 각각 실시하여 결과를 종합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참가자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시하기에 지역적 특성을 통

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참가자 중 이탈자가 발생하였다. 실험집단은 5회기 프로그램의 참여,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조사에 대한 참여를 검증기준으로 세웠고,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이탈자가 발생하여 사례수가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다. 또한, 조사도구로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본 척도가 아닌 척도의 일부 하위변인을 사용한 한계가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를 고려한 설문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척도들은 선행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동료연구자들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아동학대를 연결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을 다소 안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음을 거듭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한계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거의 없었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년의 연구과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지역사회중심형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6호, pp.213-240, 2014.
-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
- [3] 한경남,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73호, pp.171-190, 2012.
- [4] T. W. Marezki, “Intercultural marriage: An introduction,” pp.1-11, in *Adjustment in intercultural marriage*, edited by W. Tseng, J. McDermott, and Jr. T. W. Marezk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Department of Psychiatry, 1977.
- [5] S. Moon and K. DeWeaver, “An empirical test of the multicultural/multimodal/multisystems (MULTI-CMS) approach for Kore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Work Research and Evaluation*, Vol.6, No.1, pp.57-74, 2005.
- [6] 김오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호, pp.33-76, 2006.
- [7] 양옥경, 김연수, 이방현,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2호, pp.229-251, 2007.
- [8] 김지현, 오진아, 윤채민, 이자형,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2권, 제1호, pp.46-60, 2009.
- [9] J. S. Milner,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physical child abus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13, pp.275-294, 1993.
- [10] M. E. Haskett, S. Smith Scott, M. Willoughby, L. Ahern, and K. Nears, “The parent opinion questionnaire and child vignettes for use with abusive parents: Assessment of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1, No.2, pp.137-151, 2006.
- [11] N. B. Guterman, “Parental perceptions of neighborhood processes, stress, personal control, and 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Vol.33, pp.897-906, 2009.
- [12] 정현미,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창간호(3월),

- pp.71-102, 2010.
- [13] 박명숙, 이재경,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2호, pp.179-202, 2014.
- [14] 조운오,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pp.159-183, 2010.
- [15] 이재경, 박명숙,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발생 위험요인으로써의 남편의 음주, 아내폭력,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48호, pp.235-259, 2014.
- [16] N. A. Cohen, T. V. Tran, and S. Rhee, *Multicultural approaches in caring for children, youth, and their families*,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2007
- [17] 오세연, 박원배,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6권, 제3호, pp.137-163, 2010.
- [18] C. L. Williams and J. W. Berry,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Vol.46, pp.632-641, 1991.
- [19] J. W. Berry, “Acculturation and health: Theory and research,” pp.39-57, In *Cultural clinic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dited by S. S. Kazarian, and D. R. Ev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20] J. W. Berry and U. Kim,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pp.207-236, In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s applications*, edited by P. R. Dasen, J. W. Berry, and N. Sartorius, Newbury Park, CA: Sage, 1988.
- [21] 박병금,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277-295, 2013.
- [22] 송미경, 지승희, 조은영, 임영선,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 [23] 서홍란, 김기언, 김양호,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3호, pp.121-143, 2008.
- [24] 윤명숙, 이해경,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제32호, pp.103-135, 2011.
- [25] 임지향, 이홍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우울의 조절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49-70, 2010.
- [26] 박재규, “사회적 지지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역사회학, 제12권, 제1호, pp.81-110, 2010.
- [27] C. E. Morisset, *Language and Emotional Milestones on the Road to Readiness*, Arlington, VA :Zero to Three National Center for Clinical Infant Programs, 1993.
- [28] P. Smokowski, A. Reynolds, and N. Bezrucko,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ce: An autobiographical perspective from disadvantaged youth,”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37, No.4, pp.425-448, 1999.
- [29] P. A. Thoits,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 Where are We? What? When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s, pp.53-79, 1995.
- [30]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221-235, 2013
- [31] 박명숙, “한국 이민가정의 사회적지지만과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5권, 제1호, pp.127-151, 2008.
- [32] 안준희, 조정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32호, pp.137-176, 2011.

- [33] 정채옥,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0호, pp.298-325, 2001.
- [34] 김주아, “예비교사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 연구,” 문화교류연구, 제3권, 제3호, pp.99-125, 2014.
- [35] 김영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pp.51-73, 2010.
- [36] 박찬옥, 이은경, “출신 국가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부모역할 인식,”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2호, pp.65-94, 2012.
- [37] 윤재희, 유헤선,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하기,”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1호, pp.41-80, 2011.
- [38] 이연승, “유아기 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일 연구,”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제5호, pp.349-369, 2002.
- [39] 김오남, “부모의 아동 성학대 예방에 대한 실태와 요구도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pp.73-84, 2004.
- [40] 오수진, “집단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아동학대 부모교육으로서 활용 효과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제8권, 제2호, pp.125-151, 2012.
- [41] 박현선, 배진희, 안동현, 한지숙, “아동학대 가해 부모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아동권리연구, 제8권, 제4호, pp.649-670, 2004.
- [42] 이경희,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동광, 제95호, pp.134-174, 1998.
- [43] 하은경, 박천만, “아동학대실태 및 관련요인-대구광역시 일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한보건협회학술지, 제28권, 제4호, pp.351-362, 2002.
- [44] 이경남,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제1호, pp.63-73, 2004.
- [45] 고성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호, pp.21-37, 1994.
- [46] R. R. Abidin,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 [47] A. P. Goldstein, H. Keller, and D. Erne, *Changing the Abusive Parent*, Champaign, IL: Research Press, 1985.
- [48]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2호, pp.255-268, 2009.
- [49] 김현경,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4권, 제5호, pp.229-254, 2009.
- [50] 김기현, 강희경,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5호, pp.141-150, 1997.
- [51] S. D. Sandhu and R. B. Asrabadi,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 Vol.75, No.1, pp.435-448, 1994.
- [52] 이승중,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53] 박명숙, 강희경, “미국 이민 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 변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pp.79-93, 2009.
- [54] H. I. McCubbin, J. Patterson, and T. Glynn, “Social Support Index(SSD),” pp.357-389, in *Family Assessment :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edited by H. I. McCubbin, A. I. Thompson, and M. A. McCubbi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6.
- [55] 김오남, “결혼이민자가족의 아내학대와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4호, pp.5-36, 2006.

저 자 소 개

박 명 숙(Myungsook Park)

정회원



- 199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1999년 8월 : Univ.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Social Work (Ph.D)
- 2000년 9월 ~ 현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학대, 다문화, 장애인복지 등

이 재 경(Jaekyoung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정신건강 및 중독과 사회복지실천 등